

장나라, 더 깊어진 연기력...계속되는 '흥행퀵'의 저력

현재 출연중인 SBS 월화드라마 'VIP' 성공으로 저력 입증 시청률·화제성 모두 잡아... '쉽없는 대본 분석' 연기 비결

배우 장나라가 '흥행퀵' 타이틀을 제대로 굳혔다. 현재 출연 중인 SBS 월화드라마 'VIP' (극본 차해원/연출 이정립)의 성공으로 다시 한 번 저력을 입증했다. 더 깊어진 연기력이 배우에 대한 신뢰를 더했다.

장나라 주연의 'VIP'는 지난 10월28일 1회가 6.8%(이하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탔고 지난달 5일 4회가 9.1%를 기록하며 마의 10%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극 중 나정선(장나라 분)의 남편 박성준(이상윤 분)의 불륜녀 찾기'가 다소 힘을 잃으면서 시청률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지난달 26일 8회가 11.4%의 자

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마침내 10%대에 진입했다.

장나라는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다잡는 활약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작인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은 17.9%의 자체최고시청률을 기록했고, 황제 이혁(신성록 분)에게 이용당한 뒤 버림받고 복수에 나서는 오씨니 역으로 매회 열연을 보여주면서 연기도 호평을 받았다.

또한 앞서 지난 2017년 방송된 웹툰 원작의 판타지 드라마 KBS 2TV '고백부부'로도 7%대의 시청률을 달성하며 매회 높은 화제성을 자랑했다.

필모그래피에 작품이 쌓여갈 수록 깊어지는 연기력도 대중에게 신뢰를 더하는 부분 중 하나

다. 여전히 옛된 동안 미모는 여전하지만 연기로 깊어지고 성숙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배우의 노력을 실감하게 한다.

상대역인 이상윤도 'VIP' 제작발표회 당시 "왜 장나라의 작품이 성공하면 전부를 던져서 그런 것 같다"며 "보고 있으면 자기 목숨을 깎아서 작품에 던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필사적이니까 잘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옆에서 보니 그런 느낌"이라고 칭찬한 바 있다.

그 노력의 결과는 'VIP' 시청률에도 반영됐다. 'VIP'는 장나라가 연기하는 나정선의 관점에 대입해 극 중 상황을 바라보게 한다. 장나라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혼

란스러운 감정과 짙어지는 의심 가운데서도 애써 이성을 찾으며 냉정해지려 하는 모습 등으로 나정선의 복잡한 내면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VIP'에선 '고백부부' '황후의 품격'과는 다른 연기에 도전하면서, 배우로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려 하는 노력 역시도 엿보인다.

장나라의 연기 비결은 쉽없는 대본 분석이다. 그가 출연한 드라마가 연속으로 흥행하고 연기력으로도 호평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이와 관련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는 1일 뉴스1에 "장나라는 VIP 촬영에 앞서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대본을 손에서 떼지 않고 항상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나정선에 빠져들기 위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본 탐독을 심했다"며 "또한 캐릭터에 대해서 작가, 감독에게 묻고 이야기 나누며 감정선이 세세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



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VIP'은 과정에 대해 밝혔다. 나정선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해 뉴스1

이영애, 박나래에 "나도 나래바에 초대해달라" 요청

SBS '집사부일체'에 수지와 박나래가 목소리로 깜짝 출연한다.

1일 방송 예정인 '집사부일체'에서 이영애 사부와 멤버들은 칭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각자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자, 이승기와 양세형은 각각 절친인 수지와 박나래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수지와 박나래의 전화 연결에 성공한 이승기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사부도 함께 수지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물라 어리둥절한 수지에게 "너나 잘하세요"라며 예고 없이 깜짝 독설을 날려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영애의 특급 힌트에 바로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챈 수지는 사부와 영화계 선배배로서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



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사부는 이어진 박나래와의 통화에서도 완벽한 티키타카를 보여주며 찰떡 케미를 자랑했다. 특히 사부의 "저도 나래바에 초대시켜 달라"는 자진 요청에 박나래가 격정스러운 목소리로 "불친절한 금자씨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해 모두를 폭소케 했다는 후문이다.



남진, 송가인과 역대급 트로트 케미

'미스트롯' 콘서트 성황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청춘' 서울 공연이 성황리에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청춘' 서울 공연이 개최됐다.

이날 송가인을 비롯해 정미애, 홍자, 정다경, 숙행, 두리, 김소유,

하유비, 박성연까지 총 9명의 트로트 여신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오후 2회 공연에선 스페셜 게스트로 트로트의 전설 남진이 등장, 송가인과 콜라보 공연으로 관객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남진과 송가인이 꾸민 '당신이 좋아'는 나이불문 남녀노소 열광할 수밖에 없는 흥, 트로트 케미로 공연장을 들쭉이게 했다.

샘 해밍턴, 北 금강산 간다...SBS 다큐 7일 방송

방송인 샘 해밍턴이 북한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SBS '8뉴스'는 샘 해밍턴을 비롯한 국내 방송계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5명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이 출연할 프로그램은 '경

계를 넘다 2019'로, 다섯 사람이 지난 10월16일부터 1박 2일간 금강산을 방문한 모습이 담긴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기 일주일 전 관광을 마쳤다.

방송은 오는 7일 오후 8시30분, 뉴스1

적수없는 '겨울왕국2'...토요일 하루동안 117만명 동원 '1위'

영화 '겨울왕국2'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누적관객수 수치를 따르면 지난달 30일 극장에서 '겨울왕국2'를 관람한 관객수는 총 117만3992명이다.

이로써 '겨울왕국2'의 누적 관객수는 760만4225명이 됐으며, 개

봉 9일만에 압도적인 관객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같은 속도라면 '겨울왕국2'는 이번주 중 천만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겨울왕국2'에 이어 '나를 찾아줘'가 11만7435명을 달성해 2위, '블랙머니'가 9만 4072명을 동원해 3위에 랭크됐다.

MEGABOX 광주첨단점

- 1관 겨울왕국2
- 2관 블랙머니
- 3관 신의 한 수:귀수편
- 4관 겨울왕국2
- 5관 신의 한 수:귀수편
- 6관 82년생 김지영, 얼굴없는 보스
- 7관 겨울왕국2
- 8관 블랙머니
- 9관 겨울왕국2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CGV* 광주하남점

- 1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좀비랜드-더블 탭
- 2관 겨울왕국2, 좀비랜드-더블 탭, 엔젤 해즈 폴른
- 3관 겨울왕국2
- 4관 겨울왕국2
- 5관 겨울왕국2, 블랙머니, 신의 한 수-귀수편
- 6관 겨울왕국2, 82년생 김지영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

